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CHILDREN OF WILLEDEN LANE

가제 : 윌스덴 레인의 아이들

저자 : Mona Golabek, Lee Cohen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7년 4월 4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YA 회고록



- * “어린 소녀의 용기, 그리고 희망, 개인의 삶, 진실이 담긴 이야기”- 「로스앤젤리스 타임스」
- * 유명 피아니스트 모나 골라백이 음악에 눈을 뜨게 해준 피아니스트 어머니의 음악과 사랑, 생존을 기록한 **2002**년의 회고록을 **YA** 독자층을 겨냥한 새로운 버전으로 편집한 책

일요일마다 혼자 시내 전차를 타고 비엔나의 유대인 지구를 벗어나 레슨을 받으러 가는 시간이 리사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말러, 스트라우스 등 위대한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곳, 빈 곳곳을 구경하고 오페라 하우스와 거대한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에 감탄하다 보면, 말러 스트리트 한 켠에 위치한 교수님의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쌀쌀한 바람이 불어대던 11월의 어느 일요일은 더 이상 어느 때와 같지 않았다. 교수님 집 앞에 시커먼 총을 매고 버티고 서 있던 군인은 무슨 용무로 찾아왔냐고 물어보았고, 은은한 담배 냄새가 풍기는 레슨 공간은 그대로였지만 늘 “넌 내 최고의 학생이야.”라고 칭찬해주시던 교수님의 활짝 웃는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말없이 앉아 리사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던 교수님은, 한 시간 정도의 레슨이 끝나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울한 표정으로 리사에게 이야기했다. 이제 유대인 학생을 가르치는 건 위법 행위가 되었다고, 자신이 그리 용감한 사람이 아니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교수님은 작은 피아노 모양 장식이 달린 목걸이를 리사에게 걸어주며 작별을 고했다.

열네 살 소녀 리사 주라는 열살 때부터 진지하게 음악가를 꿈꾸며 살아왔다. 세계적인 음악의 본고장 빈에서 특별한 재능을 인정 받은 리사는 피아니스트가 되고픈 그 꿈이 반드시 이뤄지리라 확신했지만, 2차 대전을 앞두고 히틀러의 군대가 도시를 서서히 점령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장래희망은커녕, 유대인은 불과 몇 년, 몇 개월 뒤에 목숨이 붙어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냉혹한 분위기가 시 전체를 휩쓸 것이다. 영국의 주도로 어린 유대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동수송 작전’이 펼쳐지자, 리사의 부모님은 결단을 내렸다. 아이는 셋이었지만, 기차에는 단 한 명의 아이만 태울 수 있었고, 부모님의 선택은 음악적인 재능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한 어린 딸, 리

사였다. 그리하여 전쟁이 임박한 어느 날, 리사는 1만 명의 다른 유대인 아이들과 함께 홀로 영국으로 향한다. 리사의 딸로 이제 60대가 된 피아니스트 모나 골라백과 저술가인 리 코헨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홀로 낯선 땅에 보내진 리사가 6년간 영국에서 보낸 시간을 따라간다. 헤어지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가족들과 떨어져 런던 외곽의 어느 마을에 도착한 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리사는 ‘윌스덴 레인 고아원’에서 서른한 명의 다른 난민 아이들과 함께 마침내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한다. 리사가 연주하는 음악은 두려움에 떠는 고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고, 그 행복감은 리사가 계속 꿈을 쫓아갈 수 있게끔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는 고마운 손길로 돌아왔다. 고아원에서는 피아노를 마련해주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주변 친구들이 전반적인 음악 이론과 귀중한 기술을 알려주고, 런던 돈을 벌기 위해 이스트엔드의 의류 공장에서 만난 영국인 여성들은 리사가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주었다. 이 눈물겨운 응원과 지원으로, 리사는 왕립 아카데미에서 장학금을 받고 피아노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쥔다. 그러나 마침내 찾은 새로운 인생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걱정이 늘 드리워져 있었다.

피아니스트인 저자 모나 골라백은 2002년 처음 세상에 발표한 어머니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감동적인 피아노 연주가 포함된 한 편의 극으로 만들어 영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전시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리사의 이야기에서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음악의 놀라운 힘과 불굴의 용기에 담긴 커다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저자 소개>

모나 골라백(Mona Golabek)은 그래미 상 후보에 오른 음악가이자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위 저서를 바탕으로 한 1인 공연 ‘The Pianist of Willesden Lane’을 런던에서 개최하며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리 코헨(Lee Cohen)은 저널리스트, 극작가,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BAD GIRL GONE

가제 : 사라진 못된 아이

저자 : Temple Mathews

출판사: A Thomas Dunne Book for St. Martin's Griffin

발행일: 2017년 8월 8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등 할리우드 대형 영화사에서 극본을 써온 베테랑 작가가 선보이는 YA 신작
- * 과거도, 현재도, 자신의 정체도 모두 불명확한 상태로 깨어난 열여섯 소녀의 미스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 낮선 공기를 느끼며 에코는 정신을 차렸다. 자다가 일어난 건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건지 알 수도 없지만 주변이 온통 싸늘하다는 사실만 온 몸으로 느껴졌다. 악몽을 꾸 게 분명하다고 느끼니 왠지 마음이 편해졌다. 악몽이라 느꼈다는 건 이제 곧 깨어난다는 신호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꿈이라 생각했지만 깨어나지를 않았다.

누워 있는 침대 시트를 살펴보니 촉감이 집에 있는 익숙한 침대 시트와 확연히 다르다. 게다가 스탠드를 켜려고 손을 뻗었다가 물컹, 하는 촉감에 에코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어린 아이가 우는 소리, 낮선 냄새도 느껴졌다. 엄마가 자주 굽는 시나몬 브레드 때문에 늘 집 안 가득 배어 있던 은은한 시나몬 향도, 아빠의 독특한 로션 냄새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에코는 허공에 대고 무작정 엄마, 아빠를 불러댔다. 불안한 순간마다 떠오르는 남자친구, 앤디의 이름도 불러보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에코에게 가장 필요한 이 세 사람 중 누구도 나타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어둠에 익숙해진 에코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침대 밑에서 불쑥 나타난 허여머건 형체였다. 에코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손살같이 어딘가로 달아난 그 존재는 잠시 뒤 다시 나타나, 말을 걸었다. 피부가 유난히 희고 깡마른 체형을 한 남자아이였다.

자신을 먹이라고 밝힌 그 아이는, 여기가 대체 어디냐는 에코의 다급한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기억을 되짚어보려 해도 어쩌다 이런 곳에 왔는지 도무지 아무 기억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에코가 방문을 찾아 나가려는 순간, 어깨가 딱 벌어진 여자가 들어섰다. 간호사복 같기도 하고 수녀복 같기도 한 희한한 유니폼을 입은 그 여자는 에코에게 “신입”이라고 칭하면서 “규칙”을 모르니 한 번만 봐주겠다는 이해 못할 말과 함께, 일단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서 침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에코는 궁금한 것 투성이었지만 그 여자의 고압적인 분위기와 무서운 말투 때문에 아무것도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엄마는 치과의사, 아빠는 영어 선생님. 열네 살 때 혼자 공을 가지고 놀던 앤디와 우연히 마주쳤고 미소가 눈부시게 예쁜던 그가 불쑥 키스를 하는 바람에 난생처음 남자와 입을 맞추어본 일까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면서 기억을 더듬어보자 이런 기억들이 다 떠올랐다. 하지만 왜, 어떻게 이 이상한 곳에 오게 되었는지는 한 조각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늘 목에

매고 있던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엄마가 집을 떠날 때마다 부모님 대신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하며 챙겨주던 목걸이. 에코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목걸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깜짝 놀랐다. 아직 알 수 없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했다.

열여섯 살, 에코 스톤은 차가운 방 안, 땀으로 흥건히 젖은 침대 위에서 정신을 차렸다. 영문도 모르고 처음 보는 얼굴들과 마주한 에코는 자신이 '미들 하우스'라는 일종의 고아원에 와 있으며, 주변 아이들 모두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들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 있는 자신이 왜 고아원에 와 있는지 용납할 수 없었던 에코는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고아원 사람들을 설득해보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첫날, 침대 밑에 숨어 있던 남자아이 막이 유일한 친구가 되어 에코에게 소용 없을 거라고 조언했지만 결국 에코는 가까스로 고아원을 탈출한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도착한 집은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다. 범죄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노란색 '출입 금지' 테이프가 곳곳에 걸려 있고, 뭔가 끔찍한 폭력 사건이 일어난 흔적들이 집 안에 남아 있다. 집에서 보이지 않던 엄마아빠가 에코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차를 몰고 집 쪽으로 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반가운 마음에 길로 뛰어 나가 양팔을 미친 듯이 흔들며 어서 오라고 손짓했다. 그런데 부모님을 태운 차는,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에코의 몸을 관통해 지나갔다. 에코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제야 에코는 자신이 유령이 되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는다.

어쩔 수 없이 미들하우스로 돌아간 에코는 자신이 살해당한 후 그 기억이 다 지워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소용없었다. 지상도 하늘나라도 아닌 중간지대, 이 연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누가, 왜 자신을 죽였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자신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나선 에코는 죽기 전 삶이 지금 자신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과 영 땀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살인을 저지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던 첫 생각과 달리 용의자 목록은 점점 늘어만 가고, 배배 꼬여버린 운명의 혼란스러운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흥미로운 소재와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책장을 술술 넘기게 만드는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템플 매튜스(Temple Mathews)는 작가 겸 극본가로 활동하고 있다. 디즈니 영화 'Return to Neverland', 'The Little Mermaid 2: Return to the Sea', 'Mickey's Once Upon a Christmas'의 극본을 비롯해 워너브라더스에서 'Aloha Scooby Doo'의 극본을 썼다. 저서로는 『The New Kid』, 『The Rising』, 『The Sword of Armageddon』 등이 있다.